

# 전남방언 색채어의 형성과정\*

정 인 호

1. 머리말
2. '-어/아 하-'형 색채어의 변화
3. 음성상징
4. 결론 및 남은 문제

## 1. 머리말

국어 전반적으로 그러하듯이 전남방언에서 고유한 형용사를 가지는 색깔은 5색 정도(黑, 白, 黃, 靑, 赤)이다. 본고는 이들 색채어의 형성과정을 살펴 보려 하는 것인데 여기에 '淡'의 어형들을 함께 포함시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sup>(1)</sup> 전남방언에 쓰이는 색채어들로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데, 이기갑 외(1998)에서 주로 발췌하였으며 필자가 조사한 어형을 보충하는 것으로 하였다.<sup>(2)</sup>

\* 이 글은 1998년 12월 17일 제25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에서 발표한 요지문이다. 내용에 약간 손질을 하여 여기에 신는다. 따로 실어 발표하도록 허락한 주최측에 사의를 표한다.

(1) 중앙방언을 보더라도 '淡'의 어형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다른 색채어들과 함께 묶어 고려할 만하다. ①비슷한 어형(뭍다, 말갱다, 멀겁다 등), ②색채어에 붙는 접두사 '시(씻)- ~ 새(씻)-'와의 결합 가능성(씻말갱다, 씻멀겁다 등), ③색채어와 자유롭게 복합어 형성(허여멀겁다, 해말갱다 등).

(2)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어형들을 살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㉞ 논의의 편의를 위해 '허-'형만을 제시하는데 '뽽하다, 뽽하다' 등과 같이 '하-'형도 쓰이고 있다. 이때 그 지리적 분포는 '하-(爲)' 동사의 지리적 분포(김창섭(1997:96)의 <지도 5> 참조)와 동일하다.

㉟ 이런 '하-'류의 형용사들에는 표현적 장음이 많이 나타나나(자세한 것은 김창섭(1991) 참조) 본고에서는 장음 표시를 없기로 한다.

㊱ 어형들을 제시함에 있어 원형을 밝혀 적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는 화자들의 의식을 반영하기 위함이다(본론 참조).

- 赤 : ① 붉다 붉다  
 ② ?맑혀다 밝혀다 짙혀다 뽀혀다  
 ③ 뽀혀다 맵혀다 뽀혀다 맵혀다
- 黃 : ① 누리다  
 ② 놀혀다 놀혀다  
 ③ 낄혀다 낄혀다  
 ④ 놀놀 놀놀혀다
- 靑 : ① 푸리다  
 ② 팔혀다 펼혀다  
 ③ 펼혀다  
 ④ 시펼혀다 시펼시펼혀다
- 黑 : ① 검다 검다  
 ② ?감혀다 검혀다 감혀다 검혀다  
 ③  
 ④ 시검시검 시검혀다 시검시검혀다
- 白 : ① 히다 흐다  
 ② 희혀다 흑혀다 히커다 흐커다
- 淡 : ① 물다  
 ② 맑혀다 멀혀다  
 ③ 맵혀다 맵혀다 맑혀다 멀혀다

위에 제시한 다양한 예들 중에서 ②와 ③의 어형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과제이다. ②는 '-어/아 흐-'의 역사적인 변화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③은 모음상징에 의해 파생되었을 가능성을 미리 말해 두면서 본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방언간의 비교도 병행할 것이다.

## 2. '-어/아 흐-'형 색채어의 변화

중양방언의 색채어가 대개 'ㅎ' 발음 어간인 것을 감안하면 위에 제시한

㉞ 전남방언에서 '하'는 어두를 제외한 모든 음운론적 환경에서 'ㅎ'이 탈락한다는 점이 하나의 큰 특징을 이루는데 색채어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밝혀 둔다. 즉 '뽀혀다, 놀혀다, 펼혀다, 검혀다, 흑혀다, 멀혀다'로 표기된 어형들은 각각 '뽀거다, 누려다, 퍼려다, 꺼머다, 흐거다, 멀거다'와 같이 발음된다.

㉟ 본론에서 논의되겠지만 '뽀혀다, 밝혀다' 등은 '뽀거다, 멀거다' 등으로 적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다만 본고에서는 편의상 전자와 같이 표기하도록 한다.

전남방언의 어형들은 중앙방언과 차이를 보여준다. 그 차이점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두 방언형을 비교·제시하고자 한다.

	전남방언형	중앙방언형
赤	뺨허다	빨갳다
黃	늘허다	노랗다
靑	팔허다	파랗다
黑	감허다	까맣다
白	히허다	하얗다
淡	말허다	말갳다

- (1) (전남방언) : [빨거고](-고) [빨기서~빨개서](-어서) [빨경개](-응개)  
 (중앙방언) : [빨가코](-고) [빨개서] (-어서) [빨가니까](-으니까)

(1)에서 자음어미(-고)와 결합할 때의 격음 존재여부로서 그 차이를 좀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이한 방언분화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분화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2) 곳부리 벌거호미(杜中 10:38)  
 雲霧 | 누려호도다(杜中 10:45)  
 우미 파라호도다(杜中 6:51)  
거머호물 슬코(杜初 20:27)  
 物이 하야호야(杜初 8:53)

(2)의 예들을 통해 중앙방언의 색채어는 역사적으로 '-어/아 호-' 구성을 가진 단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현희(1985)에서는 이러한 '-어/아 호-'가 동사, 형용사와 결합하여 각각 그 행동성과 상태성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즉 '누려호-'는 형용사 '\*늘-'에 '-어 호-'가 결합하여 '黃'의 상태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 때 '어/아'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 이를 연결어미 '-어/아'로 보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물론 이를 어미로 보지 않고 어간말 모음 '으/으'가 '아/어'로 교체(예. 폭락->파라-, 누르->누려-)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주필 1995).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① 의미상 관련성이 적은 어간(파라-, 누러-)과 어간(흐-)이 직접 결합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정승철 1996), ② '프라볼가'와 같이((6) 참조) 어간말 모음만 교체되는 어형이 보인다는 점, ③ 전북방언과 제주방언의 색채어에 'ㄴ, ㅇ'이 존재한다는 점((3) 참조).

'어/아'를 연결어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현대국어 연결어미 '-어/아'와 그 기원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다음에 제시하는 전북방언(최전승 외 1992:107) 및 제주방언(정승철 1996)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3) <전북방언>

赤 : 빨간허다/빨건허다  
 黃 : 노란허다/누런허다  
 靑 : 파란허다/퍼런허다  
 黑 : 까만허다/꺼먼허다  
 白 : 하얀허다/허연허다

<제주방언>

赤 : 발강허다/벌경허다/불경허다, 빨강허다/빨경허다/빨경허다  
 黃 : 노랑허다/누렁허다  
 靑 : 파랑허다/퍼렁허다/푸렁허다  
 黑 : 가망허다/거멍허다, 까망허다/꺼멍허다  
 白 : 하양허다/혜양허다/히영허다

(3)의 어형들을 볼 때 이들 방언에서는 각각 '-언/안 흐-, -영/양 흐-'가 역사적으로 존재했음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 중앙방언의 '-어/아 흐-'와 비교할 때 'ㄴ, ㅇ'이 존재한다. 그리고 중앙방언에서 '-다랴흐-'로부터 발달한 파생 접미사 '-다랴'는 전남방언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지담허다/지뎨허다/지드래허다 지단허다/지덴허다/지드란허다 (기다랴다)  
 크담허다/크뎨허다 크단허다/크덴허다 (키다랴다)

중앙방언과 비교할 때 'ㄴ, ㅁ'의 유무에서 차이가 난다. (3)과 (4)의 예들을

통해 우리는 비음(ㄴ, ㅇ, ㅁ) 유무에 의한 이와 같은 방언분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야 할 것이다.<sup>(3)</sup>

둘째, 이현희(1985)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누르-'에 '-어' 형태가 결합할 때 그 어형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 (5) ㄱ. 雲霧 | 누러호도다(杜中 10:45)  
 ㄴ. 靉 어득호야 누르렛느니라(杜初 7:10)  
 고지 이긔터 누르러(法華 1:148)

생산성이 있는 공시적인 결합에서는 '누르+어→누르러'가 되는데(5ㄴ), '-어 호-'와 결합할 때에는 '누러'가 되는 것이다(5ㄱ). 이렇게 같은 형태 '-어'가 결합되는데 그 도출형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이들이 형태는 동일하지만 기능을 달리하는 다른 형태소일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5ㄴ)의 '-어'를 어미로 본다면 (5ㄱ)의 '-어'는 뚜렷한 통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파생접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sup>(4)</sup>

셋째, 중세국어에서 '-어/아 호-'가 어간과 결합할 때 어간모음의 교체(으/으→아/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2).<sup>(5)</sup> 물론 (6)의 예들은 이러한 모음교체가 필수적이지는 않았음을 보여 준다(이현희 1985). (6ㄱ)은 중세국어 문헌에서 나타나는 예들이고 (6ㄴ)은 현대국어 방언들에서 나타나는 예들이다.

- (6) ㄱ. 불거케 구워(救簡 3:79)  
 불가프라홀 씨라(法華 2:12)  
 프러누러코(杜重 16:40)  
 프라불가호사미(月釋 2:58)  
 ㄴ. 푸령하다 푸령다 빨경하다 히영하다

(3) 이러한 비음의 유무는 '부터~부텨/보텨, 마다~마당/마당, 보다~보담/보담' 등에서도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4) 이현희(1985)에서는 후자의 경우 어간으로 '\*늘-'을 설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런데 같은 형태 '-어'와의 결합시 어간을 달리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리의 논의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중앙방언에서 '크-'와 '-다랑-'의 결합형 '커다랑-'이 이러한 어간모음 교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어간모음 교체의 기제는 무엇인가. 이를 등화 등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 근거가 약하다. 이현희(1985)에서도 암시되었듯이 이는 음성상징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으:아'와 '으:어'의 모음상징대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대립의 의미 기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이러한 모음의 교체가 활용어미 '-어/아'가 결합할 때는 일어나지 않는 점이 '-어/아 ㅎ-'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만약 어간모음 교체가 음성상징과 관련이 있다면 '-어/아 ㅎ-'의 '-어/아'는 상징어의 파생과 관련이 있지 않았나 싶다.

'-어/아'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그치려 한다. 다만 우리는 '-어/아 ㅎ-'의 '-어/아'에 비음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 지리적 방언 분화가 일어났음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물론 이때 비음이 첨가되었느냐, 아니면 탈락하였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sup>(6)</sup> 결국 전북방언과 제주방언은 비음이 존재하는 '-언(으)/안(앙) ㅎ-'를 선대형으로 가지며, 중앙방언과 전남방언은 비음이 존재하지 않는 '-어/아 ㅎ-'를 선대형으로 가진다고 볼 수 있다.<sup>(7)</sup>

중앙방언에서 '-어/아 ㅎ-'를 선대형으로 가진다는 점은 문헌상으로도 증명되듯이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혹자는 현재의 전남방언형들을 보고서 선대형 설정에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전남방언에서는 '-어/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어간+ㅎ-'를 선대형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아'의 결합이 없이 '밖-, 맑-' 등과 같은 어근에 'ㅎ-'가 직접 결합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음 이유로 부정된다. ① 딱 방언과의 대응을 살펴볼 때 전남방언에서만 이 어미가 붙지 않을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② 만약 '밖+ㅎ-'의 구성을 가정한다면 이는 '곧ㅎ->가트-(同)'의 변화처럼 격음화를 경험했어야 할 터인데 이러한 어형(예. \*발커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③ '밖+ㅎ-'의 구성에서 '밖'의 어간말 자음군 'ㄹ기'이 '기'으로 단순화할 가능성도 있는데<sup>(8)</sup> 이러한 어형(예. \*박혀다

(6) 정승철(1996)에서는 제주방언의 예를 들어 '-어/아'가 결합된 어형에 다시 어근 파생 접미사 '-으/앙'이 결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7) 편의상 4개 방언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딱 방언은 논의에서 제외시키도록 한다.

(8) 전남방언에서 어간말 자음군 'ㄹ기, ㄹ비'의 단순화 방향은 복잡하지 않다. 역사적인 변

또는 \*바커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아 흐-'의 구성을 가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중앙방언과 전남방언의 공통어형 '-어/아 흐-'가 변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현희(1985)에서는 '-어/아 흐-'가 동사, 형용사와 결합하여 각각 행동성과 상태성의 강조를 의미하는 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송철의(1992)에서는 '-어/아 흐-'가 뚜렷한 통사적 기능이나 의미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타동사화의 기능을 가지는 '-어/아 흐-'가 등장한 것이 이들 형태 변화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두 방언에서 상이하게 나타나 또다른 방언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赤'를 예로 들어 중앙방언과 전남방언만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중앙방언>

- ① 자 음 어 미 앞 : 빨갳다 빨갳고
- ② '으'계 모음어미 앞 : 빨가면 빨가니까
- ③ 모 음 어 미 앞 : ㉠ 빨개 (-어#)  
㉡ 빨개서 빨개지다 (-어X)

#### <전남방언>

- ① 자 음 어 미 앞 : 빨거다 빨거고
- ② '으'계 모음어미 앞 : 빨거면 빨정개(-으니까)
- ③ 모 음 어 미 앞 : ㉢ 빨개~빨거 (-어#)  
㉣ 빨개서~빨기서 빨개지다~빨기지다 (-어X)

① 자음어미와의 결합형을 보면 중앙방언은 어간말에 'ㅎ'을 가지고 있지만 전남방언은 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② '으'계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중앙방언은 어간말이 '아'이지만 전남방언은 '어'임을 알 수 있다. ③ 모음어미(-어/아)와의 결합형을 볼 때 두 방언 모두 '애'를 가지고 있지만 전남방언에 '이' 또는 '여'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앙방언 활용형들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설명은 이현희(1985)에 미루고 본고에서는 전남방언형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춰 중앙방언형과 비교하여

화든지 공시적인 음운과정인지는 상관없이 '르'이 탈락한다. 예. [닥](<닭, 鷄), [봄는다](<붓+는다, 踏).

논의하도록 하겠다.

전남방언과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중앙방언의 변화는 자음어미 앞에서 ‘ㅎ-’의 ‘ㅇ’가 탈락하여 현재와 같은 ‘ㅎ’말음 어간을 형성한 점이다. 이와 달리 전남방언에서는 모음말음 어간이 형성된 것이다. 언뜻 보면 ‘빨거-, 빨가-’의 어간말 모음 ‘어/아’를 ‘-어/아 ㅎ-’의 모음 ‘어/아’로 생각하여 ‘ㅎ’가 통재로 탈락했다고 보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방언형의 피상적 관찰에서 비롯된 잘못이다.

(7) <‘히-’형 지역>	<‘하-’형 지역>
빨거다/빨가다	빨가다/빨가다
노려다/누려다	노라다/누라다
파려다/피려다	파라다/피라다
까머다/꺼머다	까마다/꺼마다
말거다/말가다	말가다/말가다

(7)에서 보이는 어형들은 모음조화를 어기고 있다. 어간말 모음 ‘어/아’가 ‘-어/아 ㅎ-’의 ‘어/아’와 동일하다면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더욱 시선을 끄는 것은 ‘히-’형 지역은 어간말 모음이 모두 ‘어’이며 ‘하-’형 지역은 모두 ‘아’라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어간말 모음 ‘어/아’가 ‘히/하-’의 모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겠다. 더구나 전남방언의 색채어와 ‘하-’ 동사의 활용 양상이 다음과 같이 전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 이런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해 준다.

어미 \ 어간	-고	-어	-어서	-응개(으니까)
히-	[히고]	[히~해]	[히서~해서]	[형개]
빨히-	[빨거고]	[빨겨~빨개]	[빨기서~빨개서]	[빨경개]

‘빨거-’의 어간말 모음 ‘어’가 ‘-어 ㅎ-’의 ‘어’가 아니라 ‘ㅎ-’가 발달한 ‘히-’의 ‘어’이라면 ‘-어 ㅎ-’의 ‘어’는 이기갑(1998:255)에서처럼 탈락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전남방언에서 ‘-어/아 ㅎ-’의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 ㉔ 'ㅎ-'가 형태상 약화되지 않고 '허-'로 변화한다.  
 ㉕ '-어/아'가 약화되어 탈락한다.

먼저 첫번째 기제에 대해 살펴보자. 전남방언에서 'ㅎ-'의 '으'가 잘 탈락하지 않았음은 많은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다(8)(8)'. 이와 같이 'ㅎ-'의 '으'가 탈락하지 않고 '허-'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은 전남방언을 포함한 서남방언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이기갑 1998:255).

- (8) 多 : 만허고~만코(-고) 만형개(-으니까) 만해~만혀(-아) 만해서~만히서(-아서)  
 (8)' 기타 : 안허다~안다(않다) 귀찬허다(귀찮다) {신<션<시원}찬허다(시원찮다)  
 점잔허다(점잖다) {술<설<수월}찬허다(수월찮다) 언잔허다(언짢다)  
 {겐<겐}찬허다(겐찮다) {편<편}찬허다(편찮다)

이러한 특징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일까. 전남방언에서 'ㅎ-'의 'ㅎ'은 어두를 제외하고 음성적으로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 어간말음이 유성음일 때에는 물론 탈락하고 어간말음이 평폐쇄음일 때에도 격음화라는 축약과정이 없이 탈락해 버리기 때문이다. 전남방언에서의 이러한 음운과정은 '허-' 앞에 단어경계가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정인호 1995). 그만큼 분리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거의 단어 경계가 놓일 것 같지 않은 '속헌다(屬), 착허다(善), 폭허다(溫)'와 같이 1음절 어간에 '허-'가 붙을 때에도 이러한 음운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는 화자들이 '허-'를 분리하여 아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색채어에서도 마찬가지다.

- (9) ㄱ. 시킴허다(시꺼멓다)  
 ㄴ. 얼굴에 꺾장이(검댕이) 시킴시킴(시꺼멓게) 묻어 갖고 (이기갑 외 1998)

(9ㄴ)의 '시킴시킴'은 '시킴'이 반복된 어형일 것인데, 이는 (9ㄱ)의 '시킴허다'에서 분리되어 부사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시킴허다'는 '[심[검허다]]'와 같은 파생에 의한 것일진대 화자들은 [[시킴][허다]]로 인식하는 것이다. 색채어에서 '허-'의 분리가능성은 다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0) 뽕 안 허냐[뽕가너냐](뽕갈잡니)  
 놀 안 허냐[노라너냐](노랑잡니)

(10)에서 '안'이 어근과 '허-'를 분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9)</sup> 이에서 볼 수 있듯이 색채어에서 '허-' 앞의 분리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런 까닭에 색채어에서 '허-'의 '으'는 중앙방언과 같은 탈락을 경험하지 않고 본동사와 같이 독자적으로 '으'어'의 변화를 거쳐 그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sup>(10)</sup>

두번째 기제는 '-어/아'의 탈락이다. 이것이 비록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11)의 예들을 보면 이러한 '-어/아'의 탈락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 (11) ㄱ. 멀크락~머크락(머리카락) 헐끈~허끈(허리끈) 울엄마(우리 엄마)  
 넘집(너무집)(남의 집) 불팍(부르팍)(무릎)  
 ㄴ. 들오-(들어오-) 올로-(올라오-) 깔앗-(가라앗-) 들앗-(들어앗-)  
 인나(일어나) 든누-(드러눕-) 던놓-(들여놓-)

(11)에서 보듯이 복합어 형성에 있어서 앞 형태소의 끝모음이 탈락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도 제약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절구조상 음운론적 강도가 약한 자음이 음절말에 오기 쉬움을 인정한다면(강창석 1984), 비음이나 유음 다음에서 모음(주로 '이, 우, 으')이 탈락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형태소 내부에서만뿐만 아니라 복합·파생어의 경우에 그 경계에서도 잘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11ㄱ). 그리고 용언의 경우 '용언어간+어/아#용언어간'의 구성이 거의 한 단위로 인식될 때, 연결어미 '어/아'가 생략되는 경우도 흔하다(11ㄴ). 이러한 예들을 볼 때,

(9) 정승철(1996)에 따르면 제주방언에서도 '퍼렁 아너다(퍼렁지 았다), 퍼렁도 허다(퍼렁기도 하다)'처럼 분리가능성이 높다.

(10) '허-'의 분리가능성과 비격음화 및 색채어의 발달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하다. 김창섭(1997)의 <지도 4>와 <지도 5>를 비교해 보면 비격음화 지역과 '놀허다'와 같은 어형의 분포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평북방언도 전남방언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부간]으로 발음할 정도로 격음화를 모르는 지역인데 그 색채어도 전남방언과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전남방언에서 ‘-어/아 허-’의 ‘어/아’ 탈락이 그리 부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전남방언에서는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기제에 의해 ‘-어/아 흐-’가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뽀허다, 늘허다, 쫄허다, 꺾허다, 흑허다, 멀허다’ 등과 같이 재구조화한 것이다. 이 변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더 언급하고 이 장을 마무리하려 한다.

먼저, ‘白’의 단어 형성과 관련한 것인데, ‘흑허다, 희허다’ 등의 어형은 설명에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① 딱 방언에는 없는 ‘ㄱ’의 존재이다. (12)에 제시한 중앙방언 색채어들의 계열관계를 살펴볼 때 ‘白’의 어형에서 어떤 자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전남방언에서는 그 자음이 ‘ㄱ’으로 남아 있다.

- (12) 붉- : 불긋불긋 : 불그무레하다  
 누르- : 누룻누룻 : 누르무레하다  
 푸르- : 푸룻푸룻 : 푸르무레하다  
 검- : 거뭇거뭇 :  
 희- : 희끗희끗 : 희끄무레하다

② \*학허다, \*헉허다와 같은 어간모음 교체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딱 색채어들과 발달을 달리할 만한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기 힘들다. ③ 만약 ‘흑허다, 희허다’가 \*획+어 허다에서 \*획-의 이중모음 변화에 의해 분화된 어형이라고 볼 때 이것의 지리적 분포가 ‘희다’에서 분화된 ‘흐다, 히다’의 경우와 사뭇 다르다. 그리고 \*획+아 허다에서 발달한 어형(\*해허다)은 발견되지 않는다. ④ ‘허-’와 결합할 때 격음화를 모르는 전남방언에서도 ‘흐커다, 히커다’의 어형이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이기갑 외 1998).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어가 ‘뽀허다, 밀허다’ 등이다. ‘뽀허다, 밍허다’ 등과 비교할 때 이들은 ‘ㄱ’이 탈락한 어형들이다. 필자는 ‘ㄱ’이 탈락한 이유를 그 자체의 불안정성에서 찾으려 한다. 제2음절의 음절핵인 모음 ‘어/아’가 역사적으로 탈락함으로써 형태소 내부의 초성 ‘ㄱ’이 제 위치를 찾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물론 ‘黃, 靑, 黑, 白’의 경우에서처럼 앞음절 말음이 모음인 경우는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어/아’탈락에 의해 남은 자음이 앞음절

말음으로 위치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赤, 淡’의 경우에는 앞음절 말음이 자음 ‘ㄹ’이어서 만약 ‘ㄱ’이 앞음절 말음으로 넘어간다면 자음군을 형성하게 된다. 물론 자음군을 형성하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음절구조상의 제약으로 자음군단순화의 압력이 계속 가해질 때 전남방언에서 자음군 ‘ㄹㄱ’은 ‘ㄹ’을 탈락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로 이 경우에 \*뺨허다(<뺨허다), \*밧허다(<밧허다)’ 등과 같이 너무 심하게 변형된 단어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赤, 淡’의 경우에 ‘ㄱ’은 어떤 음절에도 속하지 않는 자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뺨허다, 밧허다’ 등은 (주2)에서 언급한 것처럼 ‘뺨ㄱ허다, 밧ㄱ허다’ 등과 같이 표기하는 것이 좀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ㄱ’은 뒤에 오는 ‘ㅎ’과 결합하여 ‘ㄱ’으로 실현되기도 하며(13ㄱ), 부사 ‘안’과 결합하여 음절 두음으로 실현되기도 한다(13ㄴ).

(13) ㄱ. 뺨거다(<뺨ㄱ허다) 밧거다(<밧ㄱ허다)

ㄴ. 뺨가너냐(<뺨ㄱ#안#허냐, 뺨강잡니) 밧가너냐(<밧ㄱ#안#허냐, 밧강잡니)

이와 같이 ‘ㄱ’이 그 자체로도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하’의 분리가능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sup>(11)</sup> 자음군단순화의 압력은 거세지고 결국은 자음 ‘ㄱ’이 탈락의 길을 밟지 않았나 싶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뺨허-, 밧허-’형이 존재하는 데에 반해 ‘뺨허-, 밧허-’의 어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1) 전남방언에서 ‘ㅎ-’의 분리가능성은 역사적으로 계속 커져 온 듯하다. 다음에 제시한 단어들은 전남방언에서 역사적으로 한 시기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 ‘ㅎ-’의 ‘ㄹ’이 탈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거에 분리가능성이 작았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의 예들은 완전히 탈락했음을 보여주고 ㉡의 예들은 탈락형과 비탈락형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 예들은 역사적으로 한 단어 내부에 2개의 ‘ㅎ-’를 가정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앞에 있는 ‘ㅎ-’만이 ‘ㄹ’탈락을 경험하고 뒤의 ‘ㅎ-’는 이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 갈~가트-(<갈ㅎ-) 울-(<울ㅎ-)

㉡ 안허~안-(<안ㅎ-) 만허~만-(<만ㅎ-)

㉢ 귀찬허-(<귀ㅎ+지#안ㅎ-, 귀참-) 신찬허-(<시원ㅎ+지#안ㅎ-, 시원참-)

술찬허-(<수월ㅎ+지#안ㅎ-, 수월참-) 편찬허-(<편ㅎ+지#안ㅎ-, 편참-)

뽉허다	x
뒹허다	
뽉허다	뽉허다
뒹허다	뒹허다

여기에서 우리는 'ㄱ' 탈락의 상대적인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논의되겠지만 '뽉허-, 뒹허-'형은 모음 교체에 의해 '뽉허-, 뒹허-'형에서 파생된 어형이다. 바로 'ㄱ' 탈락은 모음 교체에 의해 '뽉허-, 뒹허-'가 형성된 이후에 일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음성상징

단어의 형성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송철의(1992)에서 말한 '내적 변화에 의한 파생'(자음이나 모음의 교체에 의한 단어 형성)도 그러한 방법일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음성 상징에 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음 교체에 의한 파생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므로 일반적인 의견을 따르도록 하고 이 장에서는 모음 교체에 의한 파생에 초점을 맞추어 전남방언의 색채어를 살펴볼 것이다.

내적 파생에 의해 형성된 단어들은 그 의미를 변별한다기보다는 그와는 다른 어떤 차이를 보여준다고 봄이 옳을 듯하다. 정인승(1938)에서는 이 차이를 '뜻'과 '맛'으로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말에는 반드시 “뜻”이 있는 同時에 또한 반드시 어떠한 “맛”이 있는것이다. 뜻은 그 말이 사람의 생각을 表示하는것이요 맛은 그 말이 사람의 感情을 表示하는것이다. …… 어떤 한가지 感情 아래에서 뜻이 다른 여러가지의 말을 할수 있는 同時에, 어떤 한가지 뜻을 가진 말을 가지고도 여러가지로 맛이 다르게 表現할수 있는것이니, 그 表現하는 樣式이나 條件의 如何를 따라서 그 말을 듣는, 곧 받아 느끼는, 맛이 여러가지로 달라지는것이다. (밑줄은 필자)

'말의 맛'이라는 것은 '어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데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맛'이 다르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 색깔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도 이러한 경향은 매우 강하다. 그런 까

달에 색채어는 계속 생성·발달을 할 수밖에 없으며 한 방언의 어휘체계에  
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전남방언에서 내적 파생(모음교체)에 의한 색채어 형성은 어떤 양  
상을 띠고 있는지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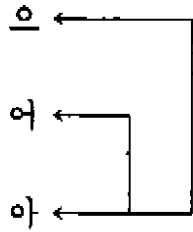
- (14) 赤 : 빨허다 — 뽉허다 — 뽉허다(뽉허다) — 뽉허다(뽉허다)  
 淡 : 맑허다 — 멀허다 — 맑허다(맑허다) — 멀허다(멀허다)  
 靑 : 팔허다 — 펼허다 — ??펼허다 — 펼허다<sup>(12)</sup>  
 黃 : 늘허다 — 늘허다 — 늘허다, 율허다

(14)에서 '아-어'와 '오-우'의 상징 대립은 그 역사가 아주 오래고 모든 방언  
들에서 보편적인 것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아-애', '어-  
이', '오-외', '우-위'의 관계가 논의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 이들 모음은 바로  
전남방언의 모음 체계에서 [후설성]에 의한 대립을 한다는 점이 우리의 시  
선을 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모음상징대립의 형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모  
음상징체계와 모음체계는 서로 다르며 각기 다른 변화의 길을 걷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모음상징체계와 모음체계는 그 대립 양상이 다를 수 있음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대체로 상징대립은 모음대립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예를 들어 '아'의 상징대립쌍을 알아보자. '아'와 '어'는 고대국어 당시  
부터 여전히 상징체계 내에서 대립을 해 왔다. 그런데 모음변화에 의해 새로  
운 상징대립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 한 예가 '아'와 '으'의 대립이다.  
중세국어만 해도 '으'와 '으'가 상징대립을 하였는데 모음변화(으>아)를 겪게  
됨으로써 상징대립이 바뀌게 된 것이다.<sup>(13)</sup> 예. 가득:그득, 간질간질:근질근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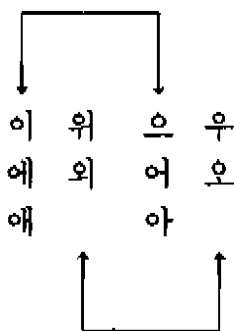
(12) 이기갑 외(1998)에 의하면 「고흥」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3) Kim(1977), 채완(1987)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중앙방언에서 상징체계가 고저  
대립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모음상징대립이 이와 같이 모음변화에 따른 옛 체계의 반영일 뿐 이라면 이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상징대립쌍을 형성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sup>(14)</sup> 물론 이 때에 새로 형성된 상징체계는 모음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모음상징체계라고 하는 것은 개개 모음의 변화에 따른 옛 대립 체계와 모음체계 변화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대립체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전남방언의 모음체계는 [후설성]에 의한 대립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음 체계에서의 대립이 새로운 상징체계의 형성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더구나 [후설성]에 의한 대립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규칙이 이 방언에 존재했다면 새로운 상징대립의 형성은 더욱 쉬웠을 것이다. 우리는 전남방언에 움라우트라는 규칙이 매우 강력하게 적용되었음을 안다. 따라서 화자들은 [후설성]에 의한 모음대립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새로운 상징대립을 형성하게 하였다고 가정할 수 있겠다. 새로 형성된 상징대립은 다음과 같다.



(14) 전남방언에는 새로운 자음상징대립의 형성을 보여주는 예들도 있다. 예. 카마니(가만히), 클씨(글씨), 풀씨(벌씨), 포도시(빠듯이), 탐박질(달음박질), 팜나(밤낮), 찰잘허다(자잘하다), 차꼬(자꾸), 참시(잠시). 전남방언의 많은 단어들에서 어두경음화가 진행됨에 따라 평음-경음 사이의 상징대립은 점차 약화되어 가고 평음의 상징대립쌍으로 새롭게 격음이 선택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새로운 상징대립을 가정할 때에 (14)에 제시한 색채어의 형성과정은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즉 (15)와 같이 모음 교체(후설모음→전설모음)에 의해 파생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는 파생).

- (15) 뽉혀다 ⇒ 뽉혀다  
 뽉혀다 ⇒ (뽉혀다) > 뽉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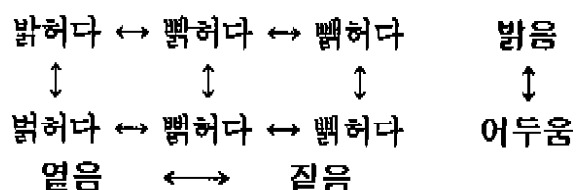
그런데 '뽉혀다'와 같은 어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전남방언에서 '에>이'의 음운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음운변화는 장음일 때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색채어는 대부분 표현적 장음을 가지고 있어서 '에>이'의 변화가 더욱 잘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전남방언에서 '전설모음:후설모음'의 상징대립이 드러내고자 하는 어감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점에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진다. 일반적으로 국어에서 모음의 상징대립에 의한 어감상의 차이는 '밝고 어두움'의 차이이다. 그리고 색채의 '질고 열음'의 차이는 자음 교체나 접사의 결합에 의해 표현된다. 하지만 이 때의 모음상징대립이라고 하면 고대로부터의 상징대립쌍인 '아:어, 오:우'(양성:음성)의 경우에만 한정된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모음상징에 의한 어감상의 차이가 '밝고 어두움'의 차이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본다.

전남방언에서 '전설:후설' 모음이 나타내고자 하는 어감상의 차이는 '질고 열음'의 차이이다. 다시 말해 전설모음이 '색깔의 질음'을 나타내는 어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sup>(15)</sup> 그러면 결국 이 방언에서는 색채어의 '질고 열음'을 표현하는 기제가 두 가지임을 알 수 있다. 자음 교체(평음→경음)가 하나요, 모음 교체(후설→전설)가 다른 하나이다. 이 때 후자에 의해 형성된 단어가 전자에 의해 형성된 단어보다 어감상 더욱 강조된 느낌을 준다. '赤'을 예로 들어 전남방언 색채어의 상징대립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5) 후자는 중앙방언의 '뇌랏다/뇌렁다'를 예로 들어 필자의 생각에 반대할지 모른다. 이들은 주로 병색이 도는 환자의 얼굴을 묘사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남방언에서의 '뽉혀다/뽉혀다'는 색깔의 질음을 표현하려는 상황에서 넓게 쓰이고 있다. 예. 뽉에꼬치가 뽉혀(누엣고치가 누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黑'의 어형으로 왜 '깜혀다, 킴혀다'는 없으며 '靑'의 어형으로 '펼혀다'는 왜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그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 가능성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전남방언에서 이들 색깔을 나타내는 말로 '킴혀다/깜혀다, 펼혀다/펼혀다'와 함께 '시/싱-'이 결합된 어형 '시킴혀다, 시펼혀다'의 사용빈도수가 매우 높다는 점이 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sup>(16)</sup> 이들 단어에서는 접두사 '시/싱-'이 결합된 어형으로 짙은 색깔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모음교체(후설→전설)에 의한 어형의 필요성을 덜 느꼈다고 볼 수 있다. 접두사 '시/싱-'이 결합된 어형의 사용이 흔한 '靑, 黑'의 경우에는 모음 교체에 의한 파생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렇지 못한 '赤, 黃, 淡'의 경우에 모음교체에 의한 파생이 자연스러운 것이 결코 우연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4. 결론 및 남은 문제

필자는 위에서 전남방언 색채어의 형성 과정을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먼저 전남방언의 색채어는 '-어/아 흐-' 구성을 가졌던 단계가 있었는데, '흐-'가 '허-'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어/아'가 탈락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뽉혀다, 밍혀다'의 어형은 이 과정에서 'ㄱ'이 탈락하여 '뽈혀다, 밍혀다'와 같은 어형이 형성된 것이라고

(16) 이때 '시킴, 시펼'을 거의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려 한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 점은 전남방언만의 특성이 아닐 것이다. 평북방언에서도 '시(씨)/새(쌌)'가 결합된 어형을 거의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쌌혀다'(白)가 그 예인데 '白'의 의미로 주로 이 단어만을 사용하고 '하얗다'계 단어의 사용은 흔하지 않는 듯 하다.

보았다.

그리고 어간 모음이 '애, 이(<에)'로 나타나는 것은 모음 교체를 통한 파생에 의한 것이다. 이는 [후설성]에 의한 상징대립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러한 상징대립의 형성은 전남방언 모음체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색채어에서 전설모음이 가지는 어감은 '질음'이다. 그리고 이 때의 어감은 자음 교체(평음→경음)를 통해 얻어지는 것보다 그 '질음'의 정도가 더한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필자는 남은 문제 하나를 언급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그동안 학계에서 음라우트를 설명함에 있어 문제로 남았던 예들이 있다. 예. 쪼꿈(조금), 빼작(바작), 빼쌩(바쌩), 갠신히(간신히), 재꾸(자꾸). 그런데 이러한 예들은 모음상징의 측면에서 접근해 봄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필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 참 고 문 헌

- 강창석(1984), 국어의 음절구조와 음운현상, 국어학 13.
- 김주필(1995), 15세기 색채형용사의 분화형과 그 통시적 특성, 기곡강신항박사 정년퇴임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태학사.
- 김창섭(1991), '하다'형용사에서의 표현적 장음,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김완진 선생 회갑기념논총), 민음사.
- 김창섭(1997), 『한국방언자료집』에 따른 서남방언의 특징, 한국어문 4.
- 배주채(1995), '그러다'류의 활용과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 남학이종철선생 회갑기념 한일어학논총, 국학자료원.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국어학총서 18, 태학사.
- 이기갑(1998), 전라남도 방언의 개관, 방언학과 국어학(청암 김영태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태학사.
- 이기갑·고광모·기세관·정제문·송하진(1998),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 이기문(1954), 어사의 분화에 나타나는 Ablaut적 현상에 대하여, 최현배선생

환갑기념논문집, 사상계사.

이현희(1985), 'ㅎ다' 어사의 성격에 대하여, 한신대논문집 2.

이현희(1986), 중세국어의 용언말어간 '-ㅎ-'의 성격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정승철(1996), 제주도 방언 'ㅎ'말음 용언 어간의 통시론,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태학사.

정인승(1938), 모음상대법칙과 자음가세법칙, 한글 6-9.

정인호(1995), 화순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134.

채 완(1987), 국어 음성상징론의 몇 문제, 국어학 16.

최전승·김홍수·김창섭·김중진·이태영(1992), 전북방언의 특징과 변화의 방향, 어학(전북대) 19.

박창원(1993), 현대 국어 의성 의태어의 형태와 음운, 새국어생활 3-2.

남풍현(1993), 중세국어의 의성의태어, 새국어생활 3-2.

이승녕(1978), 국어음성상징론에 대하여, 언어 3-1.

Kim, Kong-on(1977), "Sound Symbolism i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13.

